1998. 9. 15 창간

Vol. 208

춘천성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운동 매거진



특집 교사의 영성과 리더십
선교 러브 소나타 인 인도네시아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시사 할랄타운 조성을 중단하라
기관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2016
03

춘천 성시

창간 1998. 9. 15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차덕수,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이관형, 이연희,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디자인
로딘어스 010.5115.8731

—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 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T 033.256.1260~1 F 033.257.1260 E holycc1972@hanmail.net

※ 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문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로 연락주세요.

… 성시매거진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김용성 성화
일시 : 2016년
장소 : 갤러리

커버 스토리

예수안에서 본 예술



주 날개 아래

김용성 | 30호 F | 동일 | 2006

목자 되신 예수께서 어린양을 품듯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따뜻함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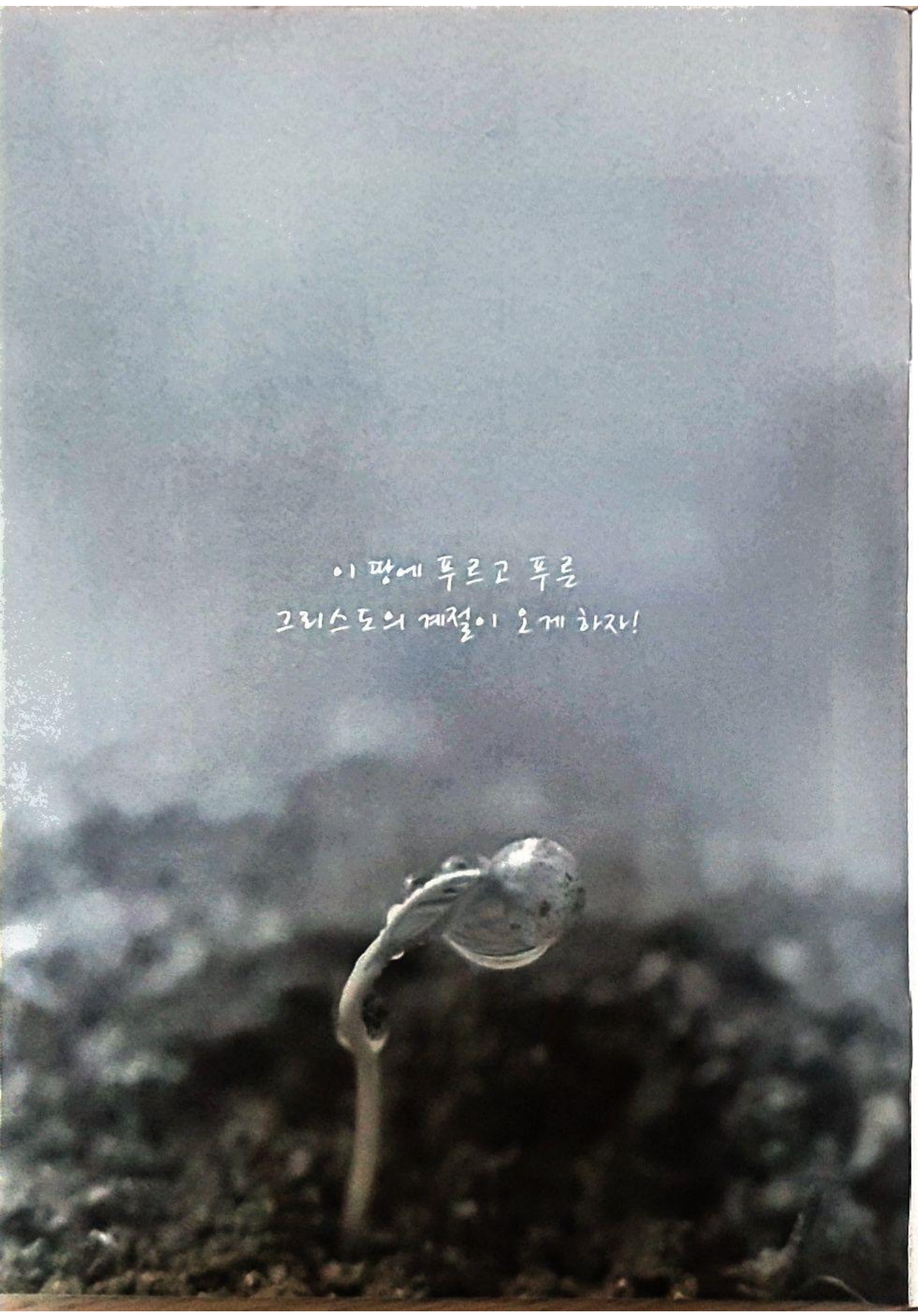
제 그림 대부분은 그림을 보는 관객이 메세지를 쉽게 이해하며 간접 체험을
할수있도록 구도와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살하려는이가 그림을 보고 새생명을 얻어 간증하며,
치유와 위로를 체험하는 역사가 참 많습니다.

김용성 성화 전람회

일시 : 2016년 2월 27일(토)~3월 25일(금)

장소 : 갤러리 오르 (춘천 스무숲 1길 16, 먹자골목 내)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Editor's Note

자아실현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여기는 현대인들은 희생하는 삶을 반문화적이고 비합리적인 삶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그래서 현대교회 안에서는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만이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는 희생하는 본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지도자들은 희생하기를 그만둔 이들도 많다. 그러다보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희생의 가치를 강조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 희생이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희생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겠는가. 부모의 희생이 없다면 어떻게 자녀가 바르게 양육될 수 있겠는가.

3월은 교회 절기상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서 희생의 리더쉽, 희생의 모범을 찾기가 어렵다. 어느 목사님께서 건축을 앞두고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교우들로 인하여 상심하여 하는 넋두리를 들은 적이 있다. 제일 기본적으로 시간과 물질에서 희생할 줄 모른다. 더 나아가서 관계와 특권에서 희생하기를 주저한다. 희생의 삶은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희생을 배운 사람들이 장성해서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금번 호에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성에 대해 특집과 다음세대에서 다루었다. 교회학교 현재의 위기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위기이다. 위기의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한국교회는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다음세대를 책임지는 교사부터 잘 세워야 한다. 결국 교사의 영성, 교사의 수준 밖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편집장 최영조

Contents

2016. 3. Vol. 208







1 커버스토리

3 에디터 노트

5 쉼 한 편
회복

6 3월 캘린더

8 특집1
교사의 영성과 리더십

11 특집2
좋은나무성품학교 프로그램

15 예향 / 만평

16 성시화
성시본부 임역원 수련회

20 선교
러브 소나타 인 인도네시아

22 통일
통일광장기도회

24 다음세대
테필린 1

27 종교개혁 4
마르틴 루터

30 시사
할랄타운 조성을 중단하라

34 설교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

36 인물
대를 이어 성시화운동 "김성호 목사"

39 칼럼
연합이 필요한 때 입니다.

40 기관탐방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44 예수의 미소
혼밥

46 영화이야기
151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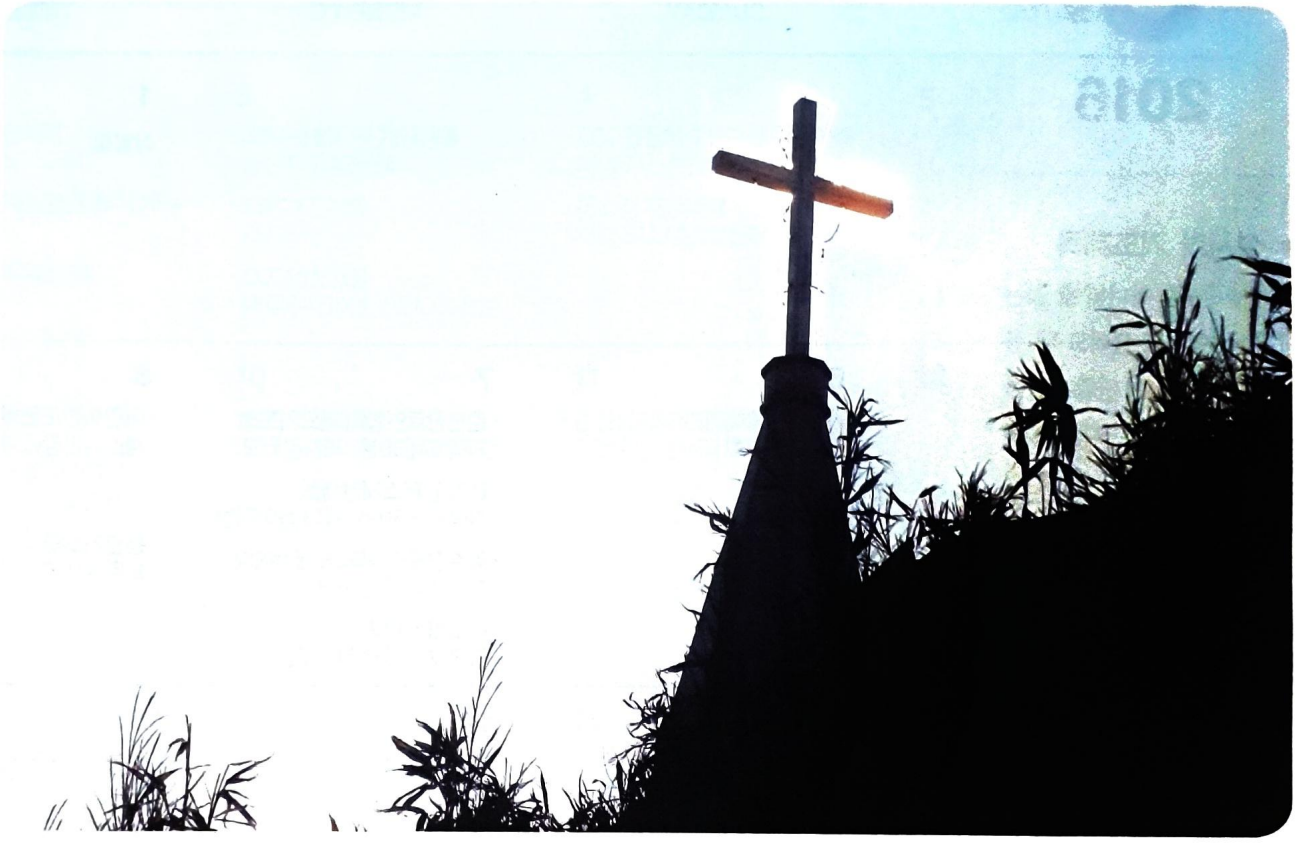
48 건강이야기
모든 치료의 시작, 해독

50 알려드려요

52 2월을 돌아보며

54 세계성시화운동 소식

56 후원자 명단



회복

이심인 (1963-)

흙먼지가 숨을 골라 쉬게 한다
허리가 무너져 마흔 한 두 날을 고생한다
광야의 침묵이 거친 소리로 외친다
속여 빼앗은 일이 부끄러워 씻으러 나간다

잠 안 오는 아내가 더듬는다
커피 내리는 향기가 온 방을 침범한다
어제 벗어 놓는 작업복이 부른다
늘어진 전깃줄 사이로 교회당의 십자가가 보인다

3
2016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 성시화 기도제목

·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이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소서.

SUNDAY	MONDAY	TUESDAY
		1 삼일절
6 기드온순방예배 우두감리교회	**7** · 춘천장로연합회 월요기도회 저녁 6시 30분, 제자감리교회 · DFC 캠퍼스개강채플 저녁 6시 30분, 강대 동아리방 · 예수전도단 캠퍼스 개강예배 저녁 7시, 춘천지부 · 예스컴 ~ 11일 중고교 교문앞 전도주간	**8** ·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강습회 개강 ~12주간 오전 10시 /저녁 7시 춘천지회 · 통일기도모임 오후 4시, 주향교회
13 기드온순방예배 제일장로교회,석사감리교회	**14** · 쥬빌리 51차 춘천모임 저녁 7시 15분, 주향교회	**15** · 춘천성시지도자모임 오전 7시, 옛날맛해장국 · 통일 기도모임 오후 4시, 주향교회
20 기드온순방예배 성광장로교회	**21**	**22** · 통일 기도모임 오후 4시, 주향교회 · DFC 춘천지역맏가지모임 오후 7시30분
27 · 부활절연합예배 오전 5시, 호반체육관	**28** · 통일 광장 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 무대 · DFC 신입생환영예배 오후 6시30분, 강대 동아리방	**29** · 통일 기도모임 오후 4시, 주향교회 · IVF 신입생 환영LGM 춘천IVF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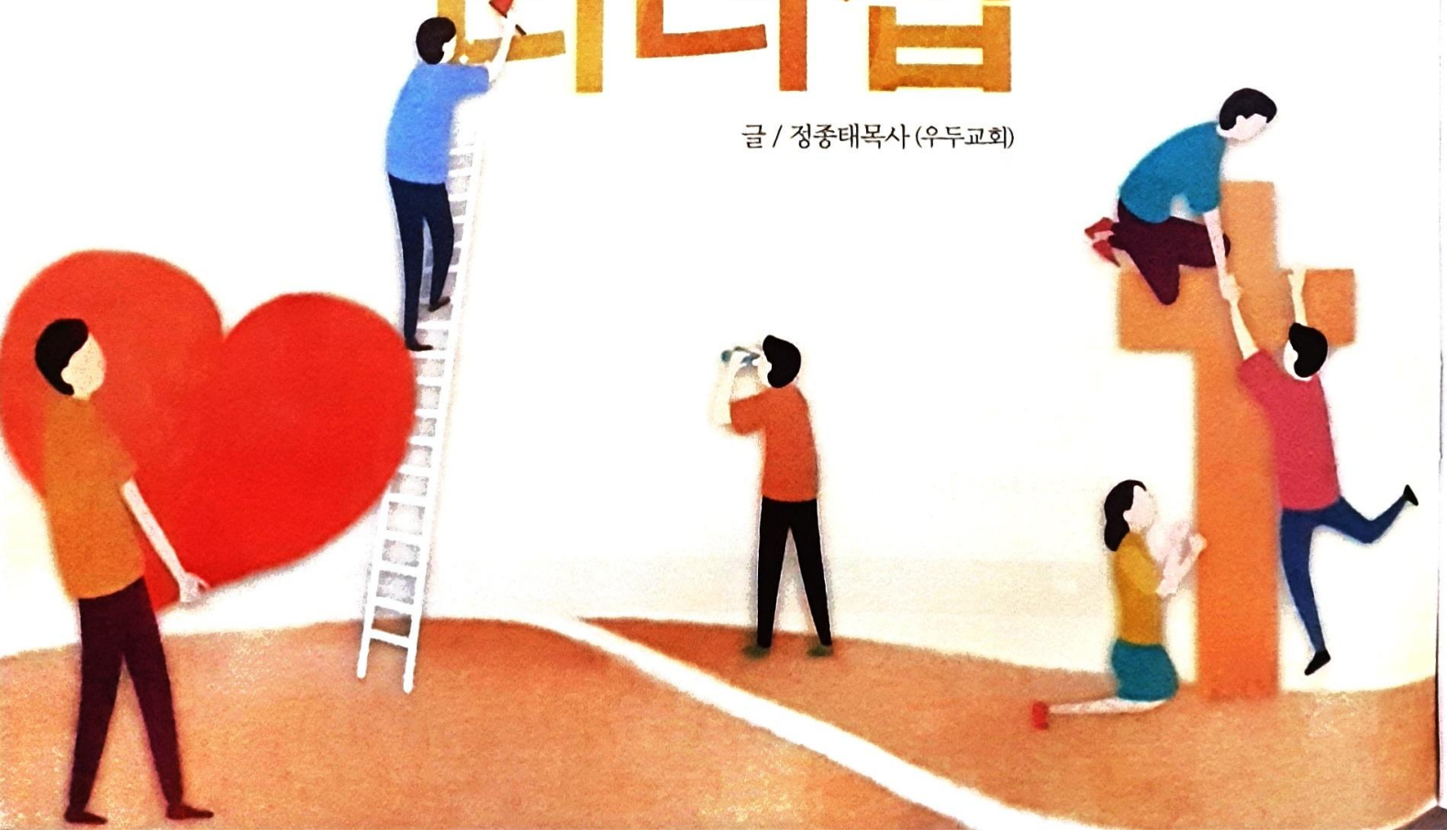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 춘천성시 편집회의 오후 2시, 갈릴리교회 · JDM 한국제자훈련원 26기 개강 JDM훈련센터 · IVF 캠퍼스사역위원회 춘천IVF회관	**3** · JDM 춘천지구 개강채플 춘천지구비전센터 · ESF 개강예배 ESF회관 · CCC 연합채플 매주 6시30분, 춘천CCC회관	**4** · CCC 안장렬대표간사 취임예배 저녁 7시, 춘천CCC회관 · 예스컴 개강예배 저녁 6시, 예스컴센터	**5**
9	**10** · CCC 연합채플 매주 6시30분, 춘천CCC회관	**11**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오전 7시, 온누리교회	**12**
16	**17** · CCC 연합채플 매주 6시30분, 춘천CCC회관	**18**	**19** · 예스컴 프레이즈 저녁 6시, 춘천중앙성결교회 드림홀
23	**24** · CCC 연합채플 매주 6시30분, 춘천CCC회관	**25**	**26**
30 춘천장로연합회 순방헌신예배 오후5시30분, 중앙성결교회	**31** · ESF 새친구 초청예배 ESF 회관 · CCC 신입생환영채플 여우사이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교사의 영성과 리더십

글 / 정종태목사 (우두교회)



교사의 영성

최근 들어 한국교회 교회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의 주된 관심사는 '위기를 맞은 교회학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학교의 위기는 교사의 영적 침체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즉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열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교회학교의 위기 중 가장 큰 요인이 정말 교사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한 답을 얻어야 교사의 영성에 대한 접근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학교에 초래한 위기의 여러 원인 중 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은 아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박상진교수는 교회학교 위기 요인을 10가지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회학교 위기의 첫 번째 요인은 교사가 아닌 부모이고, 두 번째가 학교, 세 번째는 교회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있었다. 즉 설문결과에 의하면 교회학교의 위기가 교사라는 교회학교 내부에 있기보다는 교회와 가정, 학교 등 교회학교 외부요인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영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교사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아직도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가장 밝은 불빛을 발하고 있는 교사가 그 빛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영적 도움을 주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사의 영성에 대한 접근 준거가 되어야 한다.

영성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영성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마가복음 12:30에서 분명이 말씀하고 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영성,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신앙의 본질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필수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와 유일한 주인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필수적인 요소다. 그리고 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열정적이며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교사가 신앙의 본질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며 더 전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 교사는 하나님의 행하심, 즉 교회에 허락하

신 미래세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길러내는 사역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처럼 교사도 역시 그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교사의 리더십

리더십이란 변화에 대처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성원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주목 받는 리더십을 슈퍼 리더십이라 한다. 슈퍼 리더십은 구성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리더십이다. 슈퍼 리더십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다른 슈퍼 리더로 세우는 데 목표를 둔다. 즉, 구성원들에게 슈퍼리더가 될 수 있는 준거점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섬기는 리더십, 세워주는 리더십이다.

이를 헨리 블랙커비는 기독교적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다. 교사의 영성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리더십이다. 교사 스스로 신앙의 본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교사의 영성이라 하면 학생들이 삶을 움직여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교사의 영적 리더십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사 리더십의 전형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리더십은 '임마누엘 리더십' 이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고 배웠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달려가야 할 목표를 말씀으로 분명히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 보고 배운 제자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임마누엘' 의 산 증거가 되었다.

수많은 교수법이나 교회교육 방법론보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사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교사 리더십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방법에 앞서 본질이 채워지는 교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했듯이 학생들에게 신앙인으로써 따라갈 '역할모델' 이 되어 주는 것, 그리고 학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사랑의 격려자가 되어주는 것이 리더로서의 교사의 참 된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며 자라는 순복음춘천교회 유치부 · 영아부를 소개합니다.

좋은나무성품학교 프로그램

다가올 미래의 영적 주인공으로 서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칩니다.

겨울 내내 추위에 떨었을 가녀린 나뭇가지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햇살 속에서 이른 봄의 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오렌지 빛을 띤 사랑스런 봄 햇살처럼 사랑스런 유아들이 모여 주님 주신 작은 몸과 맘으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순복음춘천교회 유치부(5~7세)를 소개합니다. 우리교회 유치부에서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을 다가올 미래의 영적 주인공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사)한국성품협회 좋은나무성품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12가지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삶속에서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등) 적용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있답니다.

좋은나무성품학교 프로그램인 12성품교육은 2가지 기본덕목과 12가지 주제 성품을 교육내용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감인지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렘9:24)과 예수님의 은혜의 성품(요1:14)을, 분별력은 하나님의 공의 성품과 예수님의 진리의 성품을 근본적인 덕목으로 삼고 이를 구체화한 12가지 주제 성품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칩니다.

언젠가 접했던 몇 줄의 글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남에게 양보를 가르치고 일본의 부모님들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훈계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절대 남에게 지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한국

의 부모님들이 그러하시지는 않겠지만 요즘 들려지고 보이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표현하는 말 인 듯싶어 가슴 한구석이 시려 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품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입니다.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영,유아 시절부터 말씀으로 양육 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저희 아이들





에게 다음세대로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습을 기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없기에 저희 교회에서는 영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할 것을 성품학교 활동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답니다.

교사는 성품으로 지도하는 교사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배웁니다.

저희 유치부 교사들은 2개월 한 번씩 좋은나무 성품교회학교에서 주최하는 성품 세미나에 참석하여 성품활동, 공과, 찬양, 율동과 아이들을 성품으로 지도하는 교사의 자세 등을 배워 각자의 반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12시30분이면 유치부 부서에 모여 주일 설교말씀(공과)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주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먼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저희들은 주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12가지의 성품의 정의를 사용하여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놀이를 하는 등 아이들을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사랑으로 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활동이 가정과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활동 계획안을 구성하여 2개월에 한번 첫째주 주일에 아이들을 통하여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의 활동으로 그치기보다는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유치부에서 배웠던 성품활동을 함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 부모님들의 적극적임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성품의

인사(지혜가 넘치는 00이 안녕하세요?)로 만나게 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배운 답니다. 그리고 반별 모임(공과)시간에는 담임선생님과의 좀 더 세밀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특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성경 말씀을 저와 교사들 마음에 새겨 유치부 모든 친구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 이웃에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가요"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 아이들은 말씀 찬양을 부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7세 아이들은 말씀 노트를 준비하여 성품의 주제 말씀을 읽고 쓰며 믿음을 견고히 다져 나가고 있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마7:17).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들었던 생명의 말씀, 오늘 배운 성품 교육이 이들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 간증을 들려주시곤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드릴 때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들었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배웠던 성품을 부모님에게, 언니 오빠에게 이야기 한다구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보배롭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키도 지혜도 자라가고 있답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 섞인 목소리를 들려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 한 알의 밀알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하심을요. 그래서 저와 교사들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춘천 땅이, 우리 강원도가, 더 나아가 이 나라에 거하는 모든 영.유아 친구들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분들께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부탁을 드리며 부족한 글을 맺으려 합니다.

글 / 순복음춘천교회 유치부 담당 최정민 사모

믿음의 유산을 다음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책임





순복음춘천교회 영아부서는 0세에서 4세까지 영아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12가지 성품을 주제로 성품교육을 하며, 말씀을 나누는 Jesus Caby 좋은나무성품학교 교회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합니다. 1월과 2월의 성품주제는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라는 주제말씀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성품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지혜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관찰해보며 첫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둘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관찰해요. 셋째, 배울 때는 잘 경청해요. 넷째,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요. 다섯째, 배우는 것을 즐거워해요. 여섯째, 좋은 책을 많이 읽어요. 라는 행동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교사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영아부 교사들과 성도님들(부모님들)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다음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 것임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맘마와 까까대신 '주여! 주여! 주여' 를 외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은 기특하기까지 합니다. 성품교육외에 저희 부서에서는 로마서 8장을 동요에 개사를 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동요와 함께 하는 로마서 8장 암송' CD가 나오게 됩니다. 복음 전도용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Blessing Kids in Worship!!'이라는 주제로 월1회 문화전도 프로그램계획하고, 지난 18일(목)에는 첫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의 주프로그램은 클레이, 쿠키, 비즈 등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 가정이 예배 안에서 승리하고, 소통되어지는 것을 기도제목으로 삼고, 저와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사역을 위해 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이수형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 순복음춘천교회 영아부 담당 김미예 사모

예향

'호모 헌드레드시대'란 인류가 평균적으로 100세를 사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이다. 물론 그전에도 개인적으로 100세를 산 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40세, 50세를 넘기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인류가 평균적으로 100세를 사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장수의 나라 일본은 1963년부터 100세를 넘기는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직접 은잔세트를 선물로 주었다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153명에 불과했던 수혜자들이 작년 통계로 매년 3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190배가 늘어난 것이다. 매년 새로 3만 명이 생겨나니까 일본정부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호모 헌드레드 시대는 좋은데,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고독"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장수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오래 사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면 의외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독하고 외롭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고독을 이길 대안은 무엇인가? 교회공동체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공동체, 두 곳밖에 없다고 한다.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살아나라 너 교회공동체여!

취재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만평

목사님, 오늘도 밥 맛있게 먹고 갑니다

설교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라고도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매번 같은 밥을 하시더라도 반찬은 편식하지 않게 밥과 어울리는 반찬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그 밥을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길 힘에 갖게 됩니다.



그림, 글 / 이관형 작가 artpam@hanmail.net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임역원 수련회를 다녀와서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이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을 겸하고 있기에 직임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간 성시본부 사역에 잘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일을 하려면 함께 선교여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두들 어려운 목회 스케줄이지만 서로 조정해서 어렵게 임역원 수련회를 마련했다. 그냥 단순한 여행이기 보다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둘러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계획을 잡고 시행했다. 장소는 춘천에서 사역하다가 필리핀 피나투보 지역에 사는 아이타족을 선교하고 있는 박철환선교사의 사역지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다들 바쁜 일정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결국 서로 일정을 맞지 않아서 박인관부이사장과 조영춘부본부장은 결국 못 오게 되었고, 사무총장인 이병철목사는 수요일에 합류하게 되었다. 박철환선교사가 사역하는 아이따족의 몇 곳을 둘러보면서 느낀 소감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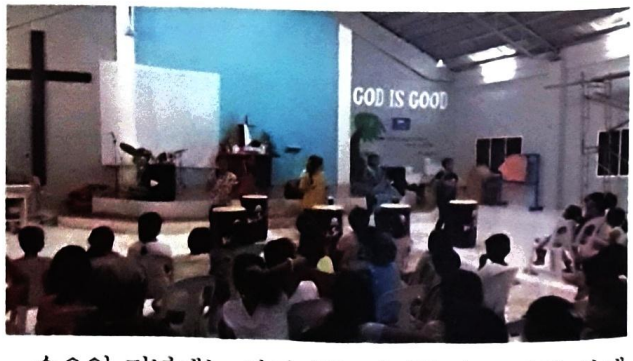
우리가 선교지에서 처음으로 간 곳은 까뚜뚜보 초등학교에 급식하는 곳이었다. 이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눠주는 사역이었다. 박철환선교사는 까뚜뚜보 초등학교가 생기된 배경과 급식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1991년 6월 피나투보 화산이 터진 후 산속의 아이따족이 산 아래로 피난을 올 때 정부에서 세웠던 임시 수용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후 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용소에 남았던 사람들이 지금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이따 마을 중 전기와 수도도 들어가고 학교도 있는 마을로 아이따 중에는 강남같이 부자 마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만 남겨두고 부모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산에 들어가서 몇 일만에 한번 씩 내려오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방치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굶주림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4~5월 방학을 마치고 6월 첫 주 개학을 했는데, 전체 270명 학생 중 7명이 안보여 확인해보니 두 달 방학 기간에 굶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산에 간 기간 동안에 일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사들이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배불리 밥을 먹이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니 급식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따 족은 거기만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많은 아이들이 절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답을 못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한인 교회에 초청받아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던 한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상태에서 살려 달라는 외침을 듣고서도 그 길을 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갔고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왜 성직자인 제사장 교회 지도자들인 레위인은 안 돕고 그냥 지나갔을까를 설교하면서 주님께서는 제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도와야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하고 직분에 충실하려면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지키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그를 돕지 않은 것을 칭찬하시지 않고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한다고 해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원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일 그 어떤 신앙의 행위나 헌신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급식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기도만하고 시작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엄마들이 죽어 있는 아이를 꿇어 안고 통곡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탄식소리도 들려왔고 갑자기 그 마을에 7개의 통나무 십자가가 퉁소리를 내면서 세워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제 마음에 굶어 죽은 7명의 아이들이 순교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선교사로 있는 한, 내가 떠나지 않는 한 내가 구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마을에서는 굶어 죽는 아이가 더 이상 없게 하겠다! 고 주님께 약속을 드리고 급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일주일에 한두번 하는 급식 이후 그 마을에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어린이도 더 이상 굶어 죽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후원이 아이들에게는 생명을 달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니 좀 더 마음을 쏟아서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간 곳은 지프차를 타고 산속에 있는 공터였다. 강도 건너고, 건너가면서 물소들이 즐비해 있는 풍경도 신기하기만 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아이따족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 곳이라고 했다. 60여 가구가 갈 곳이 없어서 거처할 땅을 마련해 주고, 집을 짓고 주변에 망고를 심어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셨다. 박선교사님은 이곳을 아이따족의 가나안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등 다방면으로 사역을 펼쳐야 하는 만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지 사역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다.



수요일 저녁에는 아이따족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몇 명의 부모들이 함께 드리는 아이따족 전통이 가미가 된 예배는 뜨겁고 밝았다. 박선교사님이 장학생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아이따족 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한 아이를 위해 5천원만 있어도 한 달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했는데 이곳 현지 사정을 보니 충분히 그것이 가능함을 느꼈다. 우리가 쉽게 마시는 커피 한잔의 값으로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다고 하니 재물 사용에 좀 더 신중함을 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에는 화산폭발을 한 정상에 등반하는 것과 오후에 아이따족이 사는 다른 마을에 빵



을 가져가서 나누는 일이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차마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지만 다른 산 속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들은 강남에 사는 것이라고 선교사님은 귀띔을 해 주었다. 신발도 없고,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는 소녀라고 할 정도의 나이였다. 그래도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이따 마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 기대가 되었다. 이렇게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귀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었다. 우리가 늘 하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요 민족이 되는 것인데, 선교사님들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다.

성시본부 임원들이 구체적인 사역은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함께 교제하며 선교지를 둘러보는 것만으로 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앞으로 춘천성시화에 새로운 활기가 될 것 같다.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글 / 차덕수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강원침례교회)



러브 소나타 인 인도네시아

글 / 김미경 사모(한울섬김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춘천시향 수석 바이얼리니스트 박지은 선생님과 춘천 YMCA 재능나눔 장학회 소속의 피아노, 바이얼린, 첼로, 플롯, 리코더, 성악 등 클래식 음악 하는 9명의 청소년을 이끌고 1월 28일 인도네시아로 출발하여 7박 9일간의 연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세 학교와, 자카르타 및 반경 네 시간 거리 안에 있는 세 현지인 교회 그리고 다섯 개의 교민 교회에서 모두 13번의 연주를 하여 약 2,000명의 사람들과 음악을 통한 교감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통하여 어린 학생들에게는 악기 연주가라는 꿈의 씨앗을 심어주고, 교민교회 성도들께는 위로와 기쁨을 한가득 선물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교회들에서는 우리가 인종이 달라도 주 안에서 하나임을, 그리고 즐거운 찬양 속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이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의 벽을 허물고, 뭔지 두렵기까지 한 격리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것입니다. 자카르타 남부에 있는 소망교회가 무슬림 주민들을 위한 음악연주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가보니 연주 장소가 마당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목사님이 선대해 온 것 때문에 친하게 인사하며 지내지만 결코 교회 건물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지은 선생님은 후덥지근 습기 진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기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목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급히 손님용 의자들을 실내로 옮기고 연주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오





지 않을거에요...들어오지 않을 거에요..." 확신하며 좀 낙심되시는 듯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다 되어도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풀방구리 드나드는 생쥐마냥 자꾸 밖을 내다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둘, 하나 둘, 줄줄- 오기 시작하더니 작은 연주장이 한 오십 명쯤 되는 무슬림 어른들과 어린이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울먹여 졌습니다. 의외로 그들은 처음 들어 보는 서양음악을 즐거워했고, 규리가 '유 레이즈 미 업'을 연주할 때는 가사 없는 음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 전체가 인도네시아 전통 민속 음악을 합창 할 때는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며 거의 뒤집어 졌습니다. 이미 노래가 끝났는데도 그들은 2절인지..? 노래를 계속 불러댔습니다. 큰 기쁨과 감동이 작은 장내를 가득 메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음악이 사람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지,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지를 말하고,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돈 벌어서 자녀들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 피아노와 기타 등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 달라고 여러 번 격려 하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사가 몇 년 걸려도 못해낸 일을 우리 음악 팀이 한 번에 끝냈다고 웃으셨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와 보니 무서운 곳도 아니었고 음악이 있는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체험했으니 그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들이 복음으로 구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한 우리 청소년들도 음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했던 춘천 YMCA와 한울섬김교회, 수고해 주신 박지은 선생님과 부모님들 그리고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사랑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 YMCA 재능나눔 장학회는 매년 2-3명의 음악적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간 매월 일정액의 레슨비 지원, 매년 정기 연주회, 매년 해외 연주회 및 다양한 연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번에는 인도네시아 연주회를 다녀왔습니다.

춘천통일광장기도회



거리와 광장에서 통일을 선포하다

"악마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은 기독교인을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건물에 가두어 두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도 기도해야하지만 교회 밖 즉 거리에서도 기도해야합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듯이 세상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전도하고 찬양합시다. 거리와 광장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2008년 6월 25일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구국금식기도회에서 故 김준곤 목사님(한국C.C.C.설립자. 에스더 기도운동 초대고문)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여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서울역 광장을 비롯한 각 도시의 광장에서 북한구원과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광장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2012년 9월부터 남춘천역 광장에서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매월 주일이 지난 4번째 월요일 오후 8시에 석사교 하천 야외무대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춘천통일광장기도회는 다음과 같은 기도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구원과 통일한국을 위하여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에스겔37:17)

대한민국의 거룩과 춘천의 성시화를 위하여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잠언11:11)

다음세대를 위하여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이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예레미야애가2:19)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편122:6)

춘천통일광장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옭아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욥기34장3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으며, 이후 당선된 대통령은 통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통일대박론으로 통일을 선도하겠다고 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통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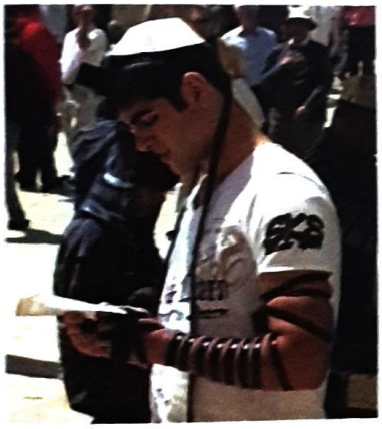
또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출애굽기12:32) 이 말씀은 완악하고 강팍한 애굽왕 바로가 모세와 히브리민족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물이며 하나님의 소원이신 자유민주, 복음통일을 곧 허락하시어 북한 지도자들이 북한지하교회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우리민족 8000만 겨레에게 기쁜 소식인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기도의 자리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 섬김이 김수복목사(거성교회)

테필린,

유대인 자녀 교육 방법 ①



요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은 위기에 처해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많을 뿐 아니라 더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지만 다음세대에게 제대로 신앙 계승을 하는데 실패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구약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붙잡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데 철저하여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려 이방인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오류이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선교하는 일에 성공을 했는데 유대인들처럼 대대로 복음을 전수하는 신앙 계승에 실패하여 어느 순간 부흥을 경험하다가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고 속히 균형을 잡아야 한다. 복음의 세대 계승과 아울러 선교라는 두 가지 원리를 동시에 잡아야만 한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



테필린 / 김형종 지음
※ 이 글은 위의 책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약의 선민 교육으로 신앙의 세대 계승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수없이 배출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에 주목을 해 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남의 나라에서 서러움과 박해 속에서 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가 2500년 만에 나라를 세웠다. 더 나아가 우수한 두뇌로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경영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 유대인의 파워는 그야말로 굉장하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1,500만의 소수 민족으로서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30%나 타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적의 민족이 되었을까? 이런 유대인의 독특한 삶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테필린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유일한 말씀 전수의 방법으로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해 온 그들만의 비밀 때문이다. 테필린은 말씀의 함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5cm 정도의 크기로 네 개의 방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담겨있다. 하나님은 테필린의 네 방에 있는 말씀만 구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마와 손목,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붙이라고 명령하셨다.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형편이 처했을지라도 이 테필린의 말씀만 가지고 교육하고 순종하여 살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필린을 이마와 손목,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는 영적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몸과 마음에 붙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테필린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매일 가르치고 반복하여 교육하고 암송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육을 한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그 아이가 말을 하면 제일 먼저 테필린의 네 방에 들어 있는 말씀을 암송하도록 날마다 반복하여 가르친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과 테필린 안에 네 개의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말과 함께 동시에 배우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의 핵심이 바로 테필린 말씀 안에 있는데 학가다(Haggadah)라는 반복 교육 방법으로 세뇌가 될 때까지 지독하리만큼 반복하여 가르친다고 한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오래 전부터 교육하는 방법을 세분화하여 그 단계에 맞게 가르침을 실천한다. 유대인들의 격언집 제5권 부록에 연령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교육하라고 한다.

"유대인은 누구든지 일생을 가르쳐야 한다. 먼저 5세 때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10세 때에는 미쉬나, 13세 때에는 계명들, 15세 때에는 탈무드를 가르친다. 20대는 직업을 찾고, 30대에는 세상을 움직일 힘을 갖고, 40대에는 선생의 총명, 50대에는 지도력, 60대는 다음세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하라." 이렇게 가르치다보면 창조적 소수의 천재들이 키워질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생각과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세대와 다음세대 간의 세대차이가 없다고 한다.

테필린에 있는 네 개의 방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1. 제1의 말씀(출13:1~10) : 이스라엘의 구속(Salvation)
2. 제2의 말씀(출13:11~16) : 구속에서의 봉헌(Offering)
3. 제3의 말씀(신6:4~9) : 봉헌에서의 교육과 섬김(Serving)
4. 제4의 말씀(신11:13~21) : 섬김에의 축복(Blessing)

각 방의 첫 글자를 따면 SOSB이다. 이것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영어권 유대인들은 SOS(비상연락)를 치면 그분은 우리에게 Bless(복)을 주신다.

유대인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재능)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부모들은 학교 공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의 교육으로 알고 가르친다. 그래서 유대인 학교에서는 학교에 등교하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오전 시간은 오로지 구약 성경과 율법과 탈무드만 배운다. 즉 신앙교육 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점심 식사 후에 3시간 정도 일반 교육을 한다. 대학교에 갈 때까지 답답할 정도로 신앙교육을 한다.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월등한 실력을 가진다고 한다. 이것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말씀을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는 일에 승부를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반복 교육을 식상해 하는 우리 교회의 문화를 반성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방법론을 배워 우리 교회와 가정에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

글 / 이병철기자 kokkos21@gmail.com

마르틴 루터, "나는 농부의 아들" ①

글 / 김현배목사(베를린 비전교회)

※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을 현재 유럽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겸 독일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을 맡아 유럽 재복음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김현배목사께서 연재해 주십니다. 김현배목사님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영국에서 영국 부흥운동사를 공부했으며 저서로는 〈영국 부흥의 주역들〉이 있습니다.



▲ 루터가 세례받은 교회 내부

중세시대 1,000년을 타락하고 부패한 암흑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여러 가지 신학적, 교회적, 윤리적 악습들이 난무하고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교황이 온 유럽을 다스리고 있던 중세시대는 교황의 권세가 대단했다. 당시 교황권의 지배를 받던 모든 사람들이 교황 제도와 교황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불평했다. 독일 교회도 교황의 통치 아래서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교황제도로부터 자유와 독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했다. 이처럼 중세는 교회의 부패와 교황의 권위로 가득했지만 어두움을 물리칠만한 구원의 빛은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제 어두운 중세시대를 마무리하시기 위해 독일의 한 젊은이를 부르셨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개혁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큰 빛이 필요했다.



▲ 아이슬레벤의 루터 생가

루터 생가 – 아이슬레벤

구워 먹을 수 없는 백조가 탄생한 곳, 루터 생가이다. 16세기의 중심 인물이 된 루터는 (Martin Luther, 1483–1546) 1483년 11월 10일, 과거 동독의 작센 지역인 아이슬레벤(Eisleben)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첫째 아들(혹은 둘째)로 태어났다. 마르틴 루터는 그 시대의 관습에 따라 출생 다음날인 11월 11일 성 베드로– 바울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다. 그가 세례 받은 날이 교회력으로 '마르틴' 성자를 기르는 날이어서 세례명으로 마르틴(Martin) 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성 베드로–바울교회는 루터가 유아세례를 받은 세례대가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다.

루터가 태어난 지 6개월 쯤 되어 루터의 부모는 약간의 돈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큰 광산지역인 만스펠트(Mansfeld)로 이사하여 정착하였다. 루터의 어린 시절은 혹독한 가난과 싸우던 시기였다. 그의 부모는 교육받지 못한 하급 신분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루터는 촌스러운 자신의 배경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평소 "나는 농부의 아들이며 (ich bin eins Bauern),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선조들은 모두 정직한 농민들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일생동안 농민들의 사상과 감정과는 대립해 있었다.



▲ 루터의 부모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은 젊은 루터

종교개혁을 위한 루터의 훈련은 엄격한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교육 기술의 주요 수단은 체벌이었으며 루터의 부모도 매우 엄격한 훈육으로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의 부모는 루터가 약간만 잘못했어도 혹독한 체벌을 했기 때문에 루터는 힘겨운 젊은 시절을 보냈다. 또한 학교에서도 교사들은 어린이들을 구타하면서 라틴어 초급 문법을 가르쳤다. 루터도 학교에서 매를 맞으며 교육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아무리 루터의 어린 시절이 혹독했다 할지라도 그는 부모의 훈육이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해졌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경건한 기독교인 어머니 마가

레테(Margarete)는 그를 어릴 적부터 철저한 신앙생활을 가르쳤는데,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소년 루터는 요리문답,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그리고 라틴 문법과 독일어 찬송을 배웠다.



▲ 루터가 유아세례를 받은 성베드로-바울교회

한편 아버지 한스(Hans Luther)는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여 만스펠트 백작의 법률고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교육에 집념이 강한 아버지는 어린 루터를 라틴어 학교에 입학 시켰다. 그리고 루터가 14살이 되었을 때 부친은 그를 아이젠나흐에 있는 라틴어 학교로 전학시켰다. 그 학교에서 루터는 종교, 도덕, 정확한 문법, 라틴어, 논리학, 웅변술, 시, 음악 등을 배웠다. 이런 과목들은 장래 루터가 신학자로서 활동과 종교개혁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기본 도구들이 되었다. 초등학교 교육을 만스펠트, 막데부르크(Magdeburg), 그리고 아이제나흐(Eisenach) 등지에서 받았다.

에르푸르트 대학의 루터

1501년, 학문에 대한 열정이 점점 뜨거워진 18살의 루터는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 에르푸르트(Erfurt) 대학교에 입학했다. 이곳 대학에는 스콜라 철학자들과 인문주의 학문의 권위자들로 존경받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라틴어 실력이 탁월한 루터는 고전 라틴 작품들, 중세 철학, 스콜라 철학, 논리학, 변증법, 수사학, 물리학, 형이상학, 라틴어 성경, 고대의 고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문학을 공부하였다. 특히 루터는 언어를 성령의 검을 보관하는 칼집으로 여겼으며, 대학 도서관에서 라틴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루터는 열의를 다하여 공부를 했고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4년 후인 1502년에는 인문학 학사학위를 받고, 1505년에는 인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루터는 그의 아버지의 큰 기대에 따라 법률가가 되기 위해 에르푸르트 대학교의 법률대학원에서 법률 공부를 하게 되었다. 드디어 아버지의 꿈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부친은 루터가 세속 법률 교육을 받도록 학비를 계속 지원했고, 심지어는 턱 없이 비싼 책인 법전까지 사 주었다. 루터는 1505년 부활절부터 법학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루터는 갑자기 법률 공부를 그만 두었다. 신기하게도 루터에게 돌연한 방향 전환이 생겼다. 루터는 같은 해 7월 17일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Augustinerkloster) 의 문을 두드렸다. 루터는 신학으로 기울어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새로운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 루터가 공부했던 에르푸르트 대학

강원도청의 할랄타운 조성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춘천, 양양, 평창, 및 강릉에 '할랄타운'을 조성하는 등 '무슬림'(Muslims) 시장을 겨냥한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2016년 9월에 동아시아 할랄 콘퍼런스와 WIEF 여성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릉에서 개최하려 하고 있고, 총 3천명 규모의 2017년 제13차 세계이슬람경제포럼(WIEF)을 유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부나 각 지자체 등 매스컴에서는 단지 무슬림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할랄 도축장, 할랄 식당 및 무슬림 기도처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느 특정 종교 확산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종교시설을 만들어주는 정책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슬람이란 먹는 것, 입는 것 등 모든 문화 사회 정치 영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성명서를 통해 이슬람의 실상에 대하여 환기시키고자 한다.



1. 이슬람은 단지 비즈니스로만 접근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슬람 인구 18억 명,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급속도로 성장하게 될 미래시장' 으로 그들 인구의 숫자, 경제 규모, 산유국으로의 오일파워 등은 매력 있는, 경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시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무서운, 배타적 폭력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2.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도축되고 가공되는 식품인데 이면의 위험성을 미화하고 있다.

우선 할랄 도축 방식은 오직 무슬림이 도축을 해야 하고, 죽을 때 짐승의 머리가 메카로 향해야 하며, 동물의 혈관을 끊을 때도 '알라' 의 이름으로, 예리한 칼로 혈관과 기도를 단번에 끊어 온 몸의 피를 모두 빼내어야 하고, 개나 돼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할랄 도축은 청정식품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단순히 알라에 대한 제사 제물입니다. 이에, 유럽에서는 동물학대적 반대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쿠웨이트 성인 25%가 당뇨 비만 등 성인병을 앓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비만율 세계 3위 당뇨병 세계 3위로 16억 무슬림들은 고질적인 지병으로 비만과 당뇨, 심장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2010.04.27 자원부국 카타르는 성인병 천국) 중동국가에는 일본과 같은 장수지역이 없습니다.

할랄음식이 정말로 웰빙 건강식품인가?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할랄음식을 통해 IS본거지를 세우게 되고 그 자체가 세금폭탄이며 이슬람 슬럼가가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3. 온건한 무슬림이 많다고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역설적 교훈을 알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 소위 온건한 무슬림들이 존재하며 온건한 무슬림들이 더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꾸란에 기록된 이슬람 교리를 보면 진정한 무슬림은 온건할 수 없으며 온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네 이웃의 불신자들과 싸우라 (꾸란 9:123)" "싸우라"는 원문의 어원은 까탈라 입니다. 이는 "죽이다. 자르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이웃을 죽이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꾸란의 엄중한 명령이기에 언제든지 폭력 테러범으로의 전환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가진 세력인 것입니다.

이슬람 전쟁은 "지하드"인데 이는 알라의 뜻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무하마드가 메디나의 통치자가 된 후 624년부터 평화롭게 공존하던 이웃마을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자들은 잔인하게 죽이고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삼든지 팔거나 물물교환을 했다는 것은 이슬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무슬림"이란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꾸란49:15)

첫째: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어야 한다.

둘째: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생명과 재산을 바쳐 지하드 (전쟁)해야 한다.



4. 무슬림은 절대 화목을 모르는 종교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하지만 중동 국가엔 불교인이 한명도 없고 타 종교인들도 엄청난 인권탄압을 받으면서 노예처럼 차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인들은 오일 머니에 현혹되어 아첨을 하듯 이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5. 무슬림 테러는 남의 일이 결코 아니며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원혜영 의원의 국정원 대외비 문건에서 2004년 10월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하던 국제테러조직인 '제마이슬라미야(JI)' 와 연계된 8명이 검거돼 강제 출국을 당했으며, 2008년 7월에는 마약 원료를 탈레반에 공급하다 붙잡힌 파키스탄인도 있었고, 지난 2010년 11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탈레반 파키스탄인 안와르 울하크(31세)와 살림 모하메드(39)가 붙잡혔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에 의하면 현재 정보 당국에서 외국인 13,000여명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10월 27일자 MBN뉴스). 문제는 대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이들을 추방하거나 처벌을 할 수 조차 없다고 합니다. 2015년 12월 알카에다 계열 테러조직인 "알 누스라"를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3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테러가 바로 눈앞에 현실인 이때 경제논리를 내세워 이슬람 청정지역인 강원도를 벨기에 몰렌베이크와 같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전진기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6. 현재 강원도가 취하고 있는 친이슬람 경영체계는 올림픽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성공적 개최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우려하게 하며 지구촌 올림픽 인들을 실망시킴은 물론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1) 올림픽 정신은 지구촌 인간성 완성과 국제적 평화증진으로서 정치, 종교, 인종을 초월한 인류화합의 평화제전 입니다. 그럼에도 강원도의 세계이슬람경제포럼(WIEF) 유치, 할랄 단지 조성, 이슬람 종교시설 설치, 할랄 식품제공 및 이슬람 선수단 특별배려와 지원은 특정종교를 협력 파트너로 삼는 올림픽 정신의 큰 훼손입니다.

2) 친이슬람 경영체계는 불특정 다수의 지구촌 주민들에게 위화감과 갈등을 야기 시키는 반올림픽적, 반화합적 정책입니다.

3) 친이슬람 경영체제는 무슬림들의 대거 입국과 이슬람문화의 지배적 현상을 초래하며, 불순분자들의 진입에 무방비 노출되는 정책 입니다. 따라서 올림픽 기간 중에도 실제적 안보위협이 되어 이슬람 테러 위협에 긴장하고 있는 세계민들을 한층 더 불안하게 합니다. 나아가 향후 강원도민과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4) 올바른 평창올림픽 경영체계를 위한 제안

가. WIEF 와 같이 '이슬람산업의 세계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특정 종교 기반의 정제기구와의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중립적 경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수립할 것.

나. 할랄단지 조성 계획과 이슬람 종교시설 설치 및 이슬람 선수단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랄식품 제공...등 특정종교를 배려한 지원을 철회 할 것.

다. 특정종교가 아닌 전종교적(全宗教的) 협력기구 발족 및 포럼을 유치할 것.

라. 정부, 올림픽유치위원회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증진 방안을 수립 실천할 것.

마. 이상의 창의적 방향으로 전환함을 전제로 우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협조와 국제적 홍보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청은 단지 경제적인 논리만을 앞세워 강원도내 춘천, 강릉, 원주 및 평창에 할랄 타운 조성 계획을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글 / 바른나라 세우기 국민운동 대표 정형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

창세기 22장 1~1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의 신앙고백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신앙고백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엘 엘론)으로 나타나셨습니다(창14:19).

여호와께서 75세의 아브람을 하란땅에서 부르셨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브람은 우여곡절 끝에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 때 돌아오는 아브람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합니다. 이 때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창14:18,19).

2 전능하신 하나님(엘 샤다이)으로 나타나셨습니다(창17:1).

이 후 아브람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젊은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99세가 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17:1).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처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100세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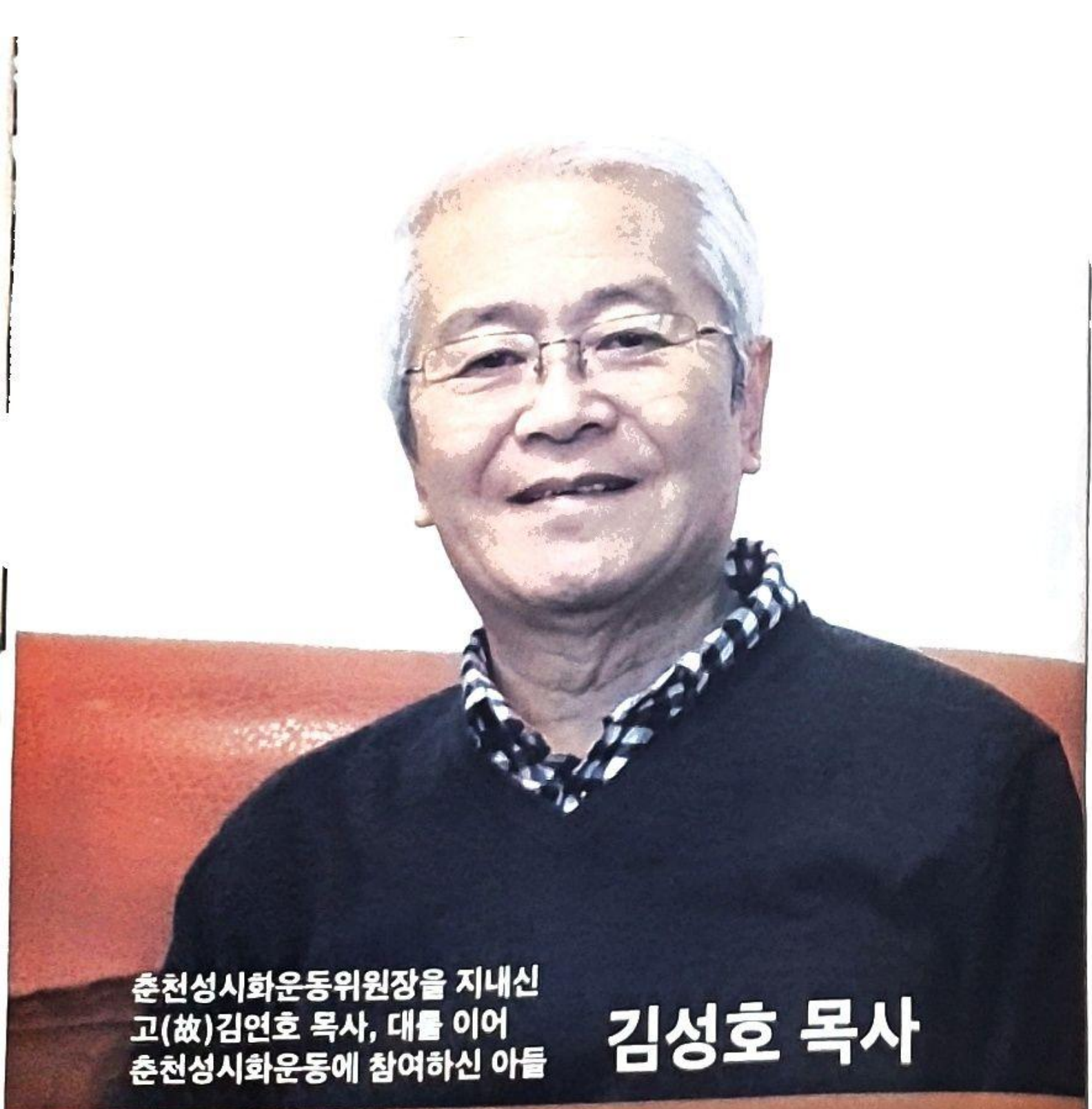
3 영원하신 하나님(엘 올람)으로 고백했습니다(창22:33).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맺고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창22:32~34).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직접 체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생명력이 길고 질긴 에셀 나무를 심고 엘 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고백은 영원하신 여호와 영생의 하나님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즉 죽음을 이긴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입니다.

"이러한 신앙고백 후에" 하나님이 이삭의 번제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창22:5).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롬4:17).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롬5:10).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롬5:10).

부활절은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은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체험되고 고백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술로 고백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진짜임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내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행사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만한 부활신앙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글 / 정덕현 목사(푸른초장침례교회)



춘천성시화운동위원장을 지내신 고(故)김연호 목사, 대를 이어 춘천성시화운동에 참여하신 아들

김성호 목사

한국기독교 근·현대사에 있어 민족의 선각자이며, 개척자이신 고(故)김용기 장로님과 함께 50~60년대 농어촌사회 계몽운동을 통한 국가재건과 기독교 영혼구원운동으로 국민정신 계도에 앞장서 오셨던 영적 지도자 고(故)김연호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김성호 목사님(실로암교회)을 찾아뵈었습니다. 고(故)김연호 목사님께서는 한국 최초로 성시화운동을 시작한 1970년대 초 춘천기독교계의 지도자로서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고, 김성호목사님은 아버님의 유업인 성시화운동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 2007년도부터 춘천기독교연합회 상임총무로 5년간 춘천성시화운동에 참여하셨었습니다. 대를 이어 춘천성시화운동에 참여하셨던 김성호 목사님을 만나 뵈니 춘천성시화운동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향에 관한 말씀과 지금까지 춘천성시화운동 역사기록에 없는 새로운 사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Q. 목사님 안녕하세요? 몇 년 전 '강촌감리교회'에서 이곳 '실로암교회'로 사역지를 옮기셨는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대를 이어 목회를 하시는데 언제 어디에서 시작하셨으며, 춘천에서의 목회와 연합활동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세요.

A. 최근 몇 년 동안 바깥출입을 많이 자제하고 있어서 자주 뵙지 못했군요. 성시 가족 여러분 다 안녕하시죠? 저는 그동안 담도암으로 투병하고 있었는데 대체요법으로 치료한 결과 최근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피하고 싶었지만 대를 이어 목회하게 되었네요. 어릴 적 꿈은 예술가나 발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돌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유언과 아버님의 간절함 때문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서울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지만 다 거절하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만 평생 섬겼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목회했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70년 6월부터이고 춘성군 사북면 지촌리에 있는 사북교회에서였습니다. 김용겸 장로님이 개척하시고 재건학교도 운영하셨는데 저는 전도사로 교회일도 하고 재건학교 영어와 음악 선생을 했습니다. 벌써 목회를 시작한지는 46년이나 되었네요.

1982년에 춘천을 떠난 이후 2003년에 춘천에 돌아왔습니다. 춘천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님 유업인 성시화 운동에 참여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5년간 기독교연합회 상임총무를 맡아서 연합회와 성시화 운동의 균형을 바로잡고 서로 연대하여 춘천 기독교의 숙원사업인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애를 썼는데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로 상임총무 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병 때문에 대외 활동을 못하게 되고 단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Q. 아버님이신 고(故) 김연호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춘천성시화 운동의 역사라고 할까요. 춘천에서 성시화운동이 시작될 때 춘천기독교계지도자로 이 운동에 참여하여 성시화운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그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 춘천중앙교회감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아버님은 1970년도에 최신식 예배당(일명: 등대교회, 아폴로 교회)을 건축하셨고 당시 1천명이 넘는 교세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도 사회참여, 계몽운동 등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3선 반대 투쟁위원회 강원도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군사독재정권과의 투쟁도 전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한 "경천애족(敬天愛族)"의 삶을 몸소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연호 목사님은 한 마디로 꿈꾸는 자였습니다. 아버님의 목회 현장은 늘 젊은이들로 채워졌고 아버님은 그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역의 대소를 떠나서 꿈을 심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젊은이들과 손잡고 그 지역에 알맞는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1963년 봄 춘천중앙교회에 부임하셔서도 처음부터 춘천을 제네바와 같은 도시로, 정직한 도시로, 깨끗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자고 역설하였습니다. 수시로 설교 때면 그 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0년대 초 당시 대학생선교회(CCC) 춘천지부 간사였던 윤수길 간사가 춘천중앙교회를 출석했고 그 꿈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평신도 기도모임에 전달되고, 다시 당시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대표였던 김준곤목사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꿈이 김준곤 목사님에게서 운동으로 구체화 되고, 아버님이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면서 72년도 성시화운동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후 1973년 아버님이 수원 종로교회로 목회지를 옮기면서 성시화운동이 잦아들었다가 1979년 다시 아버님이 동춘천(현 광장교회)교회로 오셔서 성시화 운동위원회를 재건하셨습니다. 이듬해 1980년 다시 춘천성시화 운동에 불을 붙이고 춘천성시화운동 복음화 대성회를 춘천체육관에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위원장이셨던 아버님이 1981년 봄, 이른 나이(당시 61세)로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 후 성시화 운동의 맥이 끊어졌다가 평신도 모임을 통해 성시화 운동이 다시 재개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Q. 1998년 9월15일 창간되어 춘천성시화운동을 대변하고 있는 [춘천성시신문]이 2014년 5월부터 〈춘천성시 매거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과 성시화운동사역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해 주십시오.

A. 성시신문 때보다 훨씬 알차고 읽을거리도 많고 내용도 좋아졌습니다. 편집위원들의 노고가 큽니다. 앞으로 '춘천 성시' 매거진이 일반인에게도 읽혀지는, 춘천시보 '봄내'와 같은 잡지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춘천 성시화 운동에 앞장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에 나서지는 않으시지만 조용히 성시화운동의 몫을 감당하시는 모든 목회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시화 운동은 잔물결과 같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못 한 가운데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조용한 파문이 일면서 연못가까지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은 운동입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조용하고도 지속적인 운동으로 번져 나가길 바랍니다.

※ 이번호의 성시인물 소개 대상으로 김성호 목사님을 택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춘천성시화운동이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역사'에 관한 논란이 있던 중, 지난 2015년 5월 1일(금) 성시화운동본부 임원(이사, 지도자)모임에서 "성시역사 바로세우기"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춘천성시화운동을 시작하던 1970년 당시 춘천기독교계 지도자이시며 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님으로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고(故) 김연호 목사님(김성호목사 아버님)의 성시화운동 활동에 관한 진실을 알아보기 위함임을 밝혀둡니다.

취재 / 김영명 기자 kym_5771@naver.com

연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글 / 김용배 장로(강원CBS 선교국장, 소양성결교회)

한때 TV시청률 1위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 인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환경이 척박한 아프리카 드넓은 벌판에서 종족번식과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숨 막히는 생존경쟁의 다큐 영상인데, 오직 살아남기 위해 먹고 먹히는 동물들의 적나 나한 모습과 강한 동물들의 스릴 넘치는 쫓고 쫓기는 장면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왕국이 가장 인기 있는 이유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센 물소나 코끼리, 기린 같은 초식동물들이 이빨과 발톱이 날카롭다고 하지만 몸통은 반에 반도 안 되는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작은 육식동물들에 의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고 먹히는 처절한 모습에서 쾌감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통하여 사람들의 내면엔 어쩔 수 없는 동물적인 속성이 있음을 알게 되고, 과연 나는 먹는 자의 편인가? 먹히는 자의 편인가? 하는 객관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소나 버펄로들은 참 바보로구나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돌아서서 큰 힘을 써 보거나 흩어지지 말고 힘을 합하면 사자보다 더한 것도 이길 힘이 있는데 왜 뭉치지를 못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3시, 이른 봄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는 강원도청 앞 광장에 울긋불긋한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파다하게 들리는 이슬람을 위한 할랄식품단지를 이 지역에 유치하려는 도정(道政)에 강력하게 반대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명분이야 어찌 되었든 우리 강원도는 아니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이 아닙니다. 덩치는 크고 무리는 많지만 한두 마리에게 먹혀 죽는 초식동물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흩어지는 버펄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능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로 가려는 도정을 바로 잡아주는 방향타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테러라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슬람의 활보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종교문제만은 아닙니다. 자기(코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음뿐이라는 이슬람 같은 육식동물의 잔꾀를 미리 경계하려는 순수한 초식동물의 함성입니다.

3.1독립만세 사건이 일제에 항거하는 자주민족의 함성이었다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제2의 찬탈을 노리는 외세를 후손들에게 몰라서 그리되었다는 옹색한 변명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려는 사회단체들의 서명운동과 반대운동에 더 늦기 전에 교회들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땅이 주인 없는 세렝게티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우리나라에서 군종제도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한 카투사 병사가 당시 이승만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계기로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종장교는 소속 종교에 따라 군목(기독교), 군법사(불교), 군종신부(천주교), 군종교무(원불교) 등으로 분류된다. 통상적으로 연대급 이상 부대에 배속되어 교회를 운영하며 장병들이 상담사 역할도 한다. 최근에는 연대급에만 파송했던 군종을 대대급까지 확산하고 있다. 그만큼 병사들의 문제를 밀착해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군선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강원도의 군선교는 막중한 역할을 기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때에 강원군선교연합회가 새롭게 조직을 갖추고 나가고 있어 기대가 된다. 2016년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신임회장을 맡게 된 박상칠목사님(신성감리교회)과 박용배목사(사무국장)을 만나 강원군선교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강원지역 군선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군교회는 83개 교회이나 현역 군목 16명에 불과하며, 민간 사역자가 58명이 함께 사역하다보니 1명이 주일에 2~7회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제대로 손이 못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간의 거리가 멀다보니 서로 협력하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간인 사역자들이 군교회를 섬기는 것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겸해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GOP에 있는 교회 중에는 여자목사님이 섬기시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나요?

강원지회가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역은 부활절 계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6개 군선교 지회 중에서 유일하게 강원지회만 하고 있습니다. 군장병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부활절 계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구운 계란 330판(2,300,000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동절기에는 사랑의 온차를 나눕니다. 지난해는 75Box를 전달했습니다. 해마다 600만원 정도는 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200만원 정도에 그쳐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거나 보수하는 일에 큰 교회들과 자매결연으로 연결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비로 사역하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조금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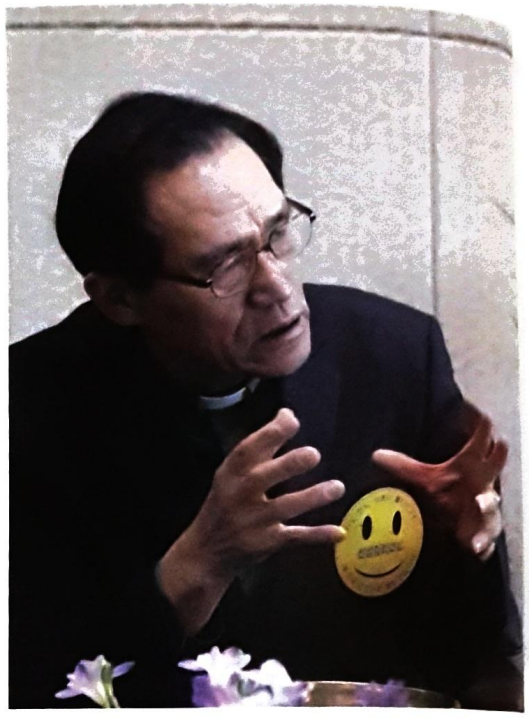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가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셨는데, 어떻게 개편하게 되었나요?

2015년까지는 지회장은 이수형목사님, 지회 총무를 제가 섬겼습



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이수형목사님이 이사장이 되고, 제가 지회장으로, 박용배 목사님이 사무국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조직이 튼튼해진 것이지요. 특별히 사무국장으로 오신 박용배목사님으로 인해 강원지회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용배목사님은 해군 2함대가 있는 평택해군교회에서 섬기셨는데, 집사님 때부터 설교하시면서 교회를 섬긴 분입니다. 천안함 사건 때에 주임원사를 하셨는데, 전역 후에 군선교에 뜻을 갖고 있던 중에 강원지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포병여단 내에 있는 불기둥교회를 섬기시면서 사무국장으로 섬깁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연합이나 단합 등이 미흡했었는데 앞으로는 많은 부분이 달라져 활성화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의 주요 사역을 무엇이며, 특별히 춘천 지역 교회들이 어떻게 군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사역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점에 유일한 대안은 군선교에 있습니다. 군선교가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망의 중심에 군선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다 가는 군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민간교회에서 목회 계획에 반드시 군선교를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지역 교회에서 협조해 주실 것은 진중 세례식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과 대대급 교회와 1:1 자매 결연을 맺고 후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역을 강원지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역 교회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관심병사들을 대상으로 힐링 캠프를 진행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간부와 장병의 인성교육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군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큐티를 하도록 생명의 삶을 나누는 사역도 있는데 지역 교회들이 동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 이병철 기자 kokkos21@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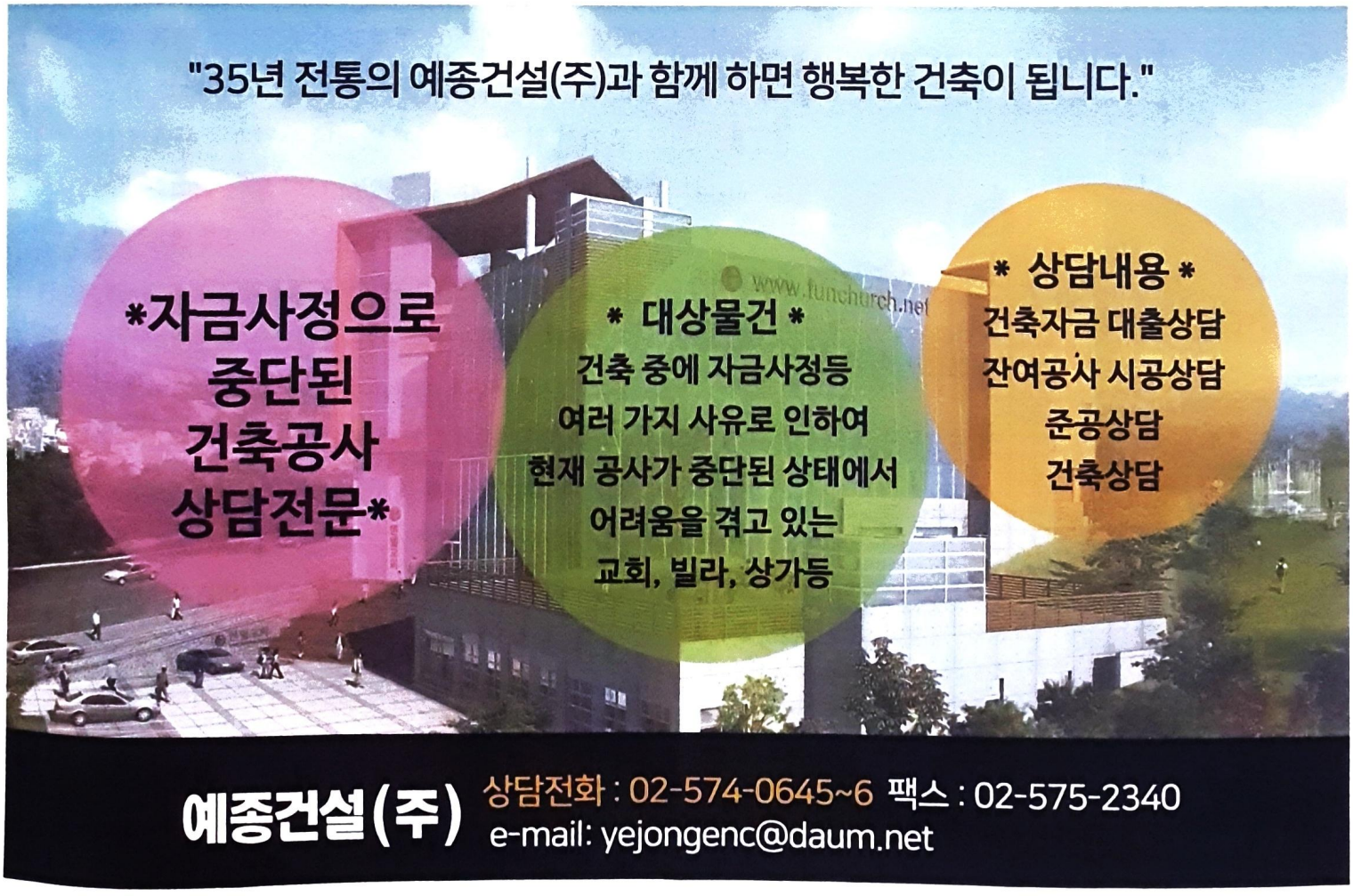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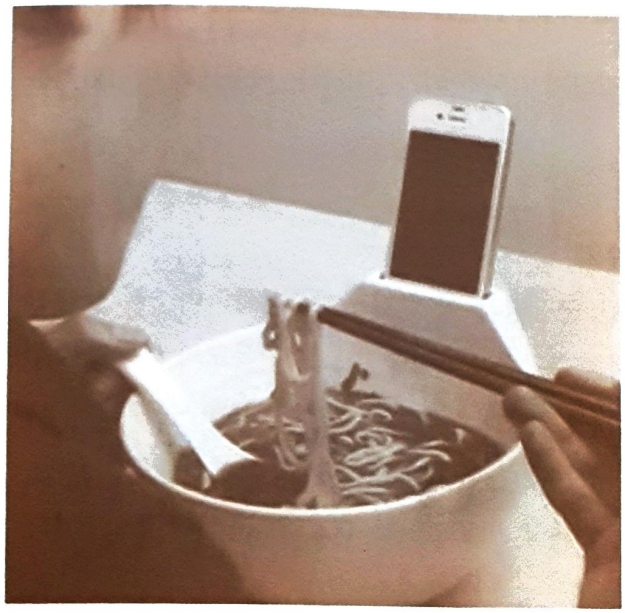
7, 15, 27사단 캠프 용사들을 위한 힐링 음악회

7, 15, 27사단 캠프 용사들을 위한 힐링 음악회가 2월 1일(월) 오후2시에 사내면 사내복지센터에서 명성교회(최남식 목사)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명성유치원 어린이들의 댄스공연과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의 합창, 둘로스팀의 섹소폰 연주, 동대문구 어머니 댄스팀의 공연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병영생활을 힘들어 하는 병사들에게 힐링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되었는데, 100여명의 병사들이 참여하여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2016년도 부활절계란 군장병과 함께 나누기" 계획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에서는 "2016년도 부활절계란 군장병과 함께 나누기" 계획하며 3월 한달간(3.1~3.24) 후원을 받고 있다.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에서는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행사를 군부대 장병들에게도 확대하여 계란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2015년에는 구운계란 330판(10,000개)를 7, 15, 27사단, 군단직할, 기타 부대에 전달하였는데, 올해에는 20,000개(소요예산 4,500,000원, 개당 230원 예상)를 전달할 목표를 갖고 모금하고 있다. 우체국 202051-02-002531 군선교강원지회





혼자 먹는 밥

글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요즘은 혼밥(혼자 먹는 밥)뿐만아니라 혼영(혼자 영화보기), 혼쇼(혼자 쇼핑)는 물론 이젠 혼여(혼자 여행)이 유행이라 한다. 유행에 민감한 필자도 요즘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 혼밥을 하는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첫 번째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잡하고 웃음소리와 인사말로 꽉 찬 시끌벅적한 직장을 퇴근 한 후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이고 두 번째는 누구랑 같이 식사하게 되면 늘 습관처럼 상대방의 식사습관을 관찰하게 되고 또한 원장이란 직함 때문에 내가 계산을(상대방도 내가 계산을 할 줄 알고) 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 또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은근히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계산을 하면 2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귀찮고 번거로워서 아예 1차를 계산하고 빠질 때가 많다.) 나는 혼자 밥을 먹는 경우 내 자신에겐 인색하리 만큼 내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음식 값이 4,000원이 넘는 것을 사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긴 고기집이나 탕 음식점에는 1인분을 팔지 않으니 어차피 가질 못하고) 그렇다보니 집근처 분식점 김밥천국에서 라면보다도 더 저렴한 2,500원짜리 우동을 먹거나 아니면 직장근처 먹보스넥에서 2,000원짜리 라면 한 그릇과 1,000원짜리 야채김밥 한 줄을 사먹는다. 이것도 귀찮으면 아예 편의점 도시락을 사 갖고 가서 집 거실 소파에 앉거니 누웠거니 하면서 TV를 보며 먹을 때도 종종 있다.나이 50에 접어드니 누가 저녁을 사준다 해도 내 돈 주고 사먹지 않는 요선동 '봉운장'의 비싼 갈비가 아니라면 외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요즘 나는 음식으로 표현하면 부드럽고 섬세한 맛의 소바(우동) 같은 일본드라마를 주로 방영하는 케이블 J채널에 푹 빠졌다. 특히 "극심한 공복이 찾아왔을 때 잠시 동안 그는 자기 멋대로가 되고, 자유로워진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자신에게 주는 포상" 이란 대사로 시작하는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는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이 사람이 그리운 쓸쓸한 이들이 늦은 저녁

에 만나 서로 부대끼며 보듬고 웃는 저녁드라마 형식이라고 하면 '고독한 미식가'는 점심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심야식당' 처럼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만든 TV 드라마로 세일즈맨인 주인공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는 일종의 포상처럼 우연히 들린 맛 집에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맛있게 혼자 식사하는 모습이 나와 동질감을 안겨주는 등의 잔잔한 에피소드가 작은 웃음을 선사해준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음식에 관한 만화의 대표작인 허영만의 '식객' 은 마치 고무짓빵을 지나가는 느낌에 가까워서 때론 편안하지가 않고 음식점 TV 취재 또한 개그맨인지 가수인지도 잘 모르는 이가 등장해서 침을 튀겨가며 인터뷰하는 가운데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의 과도한 액션을 취하며 먹는 장면을 정신없이 보다보면 정작 소개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시선이 가질 않아 오히려 급하게 음식을 먹다 화장실 가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

혼밥(혼자 먹는 밥) 그럼 과연 혼밥은 마냥 좋은 걸까?

다소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일의 중요함을 깨닫기 위해 가끔 혼자 밥을 먹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크리스천의 지상최대의 목표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처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에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특히 교회내 교우들이 혹시나 혼밥을 하고 있지는 않나 살펴보고 혼밥을 하는 경우 같이 밥 한끼 먹자라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 말고 같이 식사부터 하자. 그리고 혹시나 아픈 상처가 있으며 보듬어주고 중보기도를 하자. 바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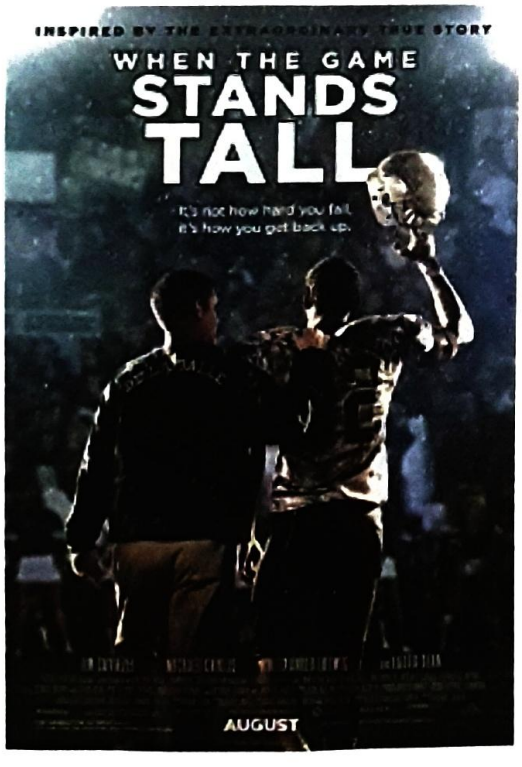
필자는 결혼 후 20년 넘도록 매주 주일 저녁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과는 많은 대화는 못하지만 얼굴에는 기뻐하시는 표정을 역력히 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라는 정성껏 맛있게 차려 놓은 밥상을 우리가 세상사 이런 저런 일로 해서 밥상을 물리면 목사님은 그 식은 밥상을 쳐다보며 얼마나 서운하실까하는 생각이 든다.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다.



When the Game Stands Tall

151경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봄이다. 올해는 부활주일을 예년에 비해 일찍 맞이하게 되고 그리하여 지금 사순절인 셈인데 여러 가지로 새로운 마음으로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춘삼월이다. 새로운 생명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성장이 시작되는 이때 우리는 성장의 과정과 아픔을 먼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겸허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도자나 코치를 만나는 것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이 영화는 바로 이러한 성장의 아픔과 훌륭한 코치를 만남으로서 이루어내는 훌륭한 결과를 보여준다. 151경기를 연승해 내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달성한 그 이후의 이야기이다. 물론 그러한 기록을 달성하기까

지 남다른 노력과 비결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그러한 업적이나 승리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더욱 중요한 것을 이 영화는 가르쳐주고 있다.

산드라 블록에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안긴 〈블라인드 사이드〉와 같은 미식축구를 소재로 한 스포츠 영화이면서 기독교적 메시지와 감동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영화라 할 수 있는데 전자가 인종차별을 극복한 인간승리의 이야기라면 이 영화는 다시 거듭남의 귀한 메시지로서 겸허와 성장의 아픔을 가르쳐주는 영화라 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드라살 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스파르탄' 의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151연승이라는 전설적인 기록 이후 찾아온 비극과 갈등 그리고 코치의 건강 등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그러나 다시 심기일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세워가는 승리의 과정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형제애를 통해 모두가 한 가족임을 강조하고, 운동 실력보다는 아이들의 성장에 초점을 둔 밥 라두쇠 코치의 프로그램은 151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의 바탕이 되었으며 동시에 선배들의 졸업과 한 선수의 비극, 그리고 코치의 전근 문제와 심장발작으로 인한 입원 등의 난국을 헤치고 새롭게 거듭나는 팀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을 인용하며 선수들을 독려하는 주인공 밥 라두쇠는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끔찍하고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감당하는 예수 역으로 유명한 제임스 카비젤이 맡아 흥미와 더불어 극적 무게감을 더하였다.

닐 헤이에스가 쓴 논픽션 소설을 토대로한 실화영화로서 뭉클한 감동을 주는 이 영화는 농구를 소재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코치 카터〉를 만든 토마스 카터의 감독으로 관록의 여배우 로라 던이 코치의 아내를 맡아 열연을 펼쳤다.

새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와 더불어 겸허와 성장의 아픔을 거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앞에 서기 위하여 이 영화를 통해 은혜를 받기를 기대한다.

글 / 김춘배기자 beller@hanmail.net



모든 치료의 시작, 해독

글 /김태균 (김태균자연의원)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환자의 마음상태에 따라 치료의 결과는 아주 다르다. 긍정적이고 기대감을 가진 환자일수록 결과는 그만큼 성공적이다.

잠언 말씀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18:14)"라는 말씀이 있듯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그의 말을 충분히 듣고 마음에 의지와 소망을 품게 하려고 노력한다.

마음의 문제를 제외하고 환자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해독"이다. "독소를 비워내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사방에 널려있는 먹거리들을 거의 매일 과잉 섭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먹거리들 속에 우리가 원하는 좋은 영양소들이 얼마나 들어 있을까?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의 수확과정을 보자. 화학비료를 주고 제초제 2회, 살균제와 살충제를 희석한 농약을 다섯 번 이상 살포해야 수확한다고 한다. 고추도 15회 이상 소독해야 수확이 가능하고 과일 역시 여러 번의 소독과정을 거치치 않고는 정상적으로 수확하기 힘든 실정이다. 농작물뿐 아니라 육류, 밀가루 가공식품, 소세지와 햄 등의 육가공식품과 같은 수많은 가공식품 속에는 방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등 600여 종의 화학물질을 첨가되어 있다. 한국인 1인당 연간 24.69kg의 식품첨가물을 섭취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먹거리는 농작물의 과잉경작, 과도한 농약과 살충제 사용, 유전자를 조작한 종자 파종, 식품첨가물 등으로 인하여 영양결핍, 독소과잉 상태의 식품들이다. 이런 독소범벅인 음식을 먹고도 하루하루 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의 위대한 해독시스템이 이 독소들을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해독시스템도 넘치는 독소를 다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몸은 병들게 된다. 몸에 이상이 오면 갖가지 검사를 한 뒤 대개 항생제를 비롯한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 화학약물 역시 우리 몸에 독소를 쌓는데 일조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몸은 필요한 영양소 대신 독소로 채워진 식사와 환경의 독소, 스트레스로 인하여 매일매일 몸살을 앓고 있다. 두통, 변비나 설사, 알레르기 증상, 과체중, 우울증, 불안, 갖가지 통증, 나이보다 빠른 피부노화, 만성피로 등 우리 몸이 처리하지 못한 독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해독을 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흔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염증이다. 암이나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등에 만성염증이 관련되어 있음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데 결국 그 많은 질환들이 우리 몸의 독소로 인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없애기 위해 갖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대증요법으로는 질병을 완치할 수 없다. 질병의 근본원인인 독소를 제거하는데서 부터 질병치료는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들에게 가능하다면 해독치료를 받게 한다. 좋은 약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만 그 다음 치료들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 시간 장을 비워주면서 유산균과 같은 좋은 미생물을 채워줌으로써 장상태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과도하게 섭취된 음식을 소화하느라 낭비되던 에너지를 해독시스템에 돌려줌으로써 온 몸을 정화하게 한다.

해독의 효과는 놀랍고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심한 아토피피부염으로 잠을 자지 못하여 몸무게가 10킬로그램이나 감소하고 우울증까지 겪게 된 20세 여자 환자가 진료실에 와서 힘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증상을 얘기한 후 나에게 "선생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라며 간절하게 매달렸다. 그 환자에게 장해독치료를 시행하면서 체온을 올려주고 피부증상이 심한 부위에 국소적인 치료를 더한 결과 한달 만에 피부증상이 거의 다 호전되어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몸무게가 3킬로그램이나 증가하였다.

키 175센티미터, 몸무게 109킬로그램으로 고도비만 상태인 남자환자가 지방간(간수치가 정상의 5배이상 증가된 상태)과 심한 고중성지방혈증을 치료하고 싶다며 내원하였다. 그 환자에게도 역시 해독치료부터 시작하였고 한달 만에 몸무게가 7.3킬로그램 감소하고 간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반이하로 뚝 떨어졌다. 어떤 약도 사용하지 않고 해독치료만으로 얻은 결과였다. 고도비만과 자궁내막증식증에 의한 하혈증상으로 치료를 위해 직장까지 사직한 상태로 자궁적출수술을 권유받은 42세 여자환자는 5개월만에 비만과 자궁내막증식증을 모두 해결 받고 직장생활을 다시 할 수 있었다. 이 또한 해독치료의 효과였다.

내 몸 안에 가득한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이야말로 모든 치료의 시작이다. 먼저 독소를 비워내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대부분의 건강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고 기름칠을 해 줘야 오래 오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 몸 또한 해독과 영양소 공급을 통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것이다. 영양소 결핍, 독소과잉의 먹거리와 오염된 환경,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몸에 좋은 것을 찾기 전에 내 몸에 있는 독소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글을 맺는다.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예강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9947-9631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⑧ 교회음악 (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 피아노1층(후석로 150번길 17-1)

☎ 010-6375-8874

♥ 알림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0-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춘천동부교회 교회 음악교육 과정안내

· 과정 : 반주과정 (피아노, 오르간, 신디), 성가독창, 성가합창, 바이올린, 첼로, 플룻, 우크렐레, 기타, 드럼

· 개강 : 3월, 9월 각 12주 과정

· 접수 : 춘천동부교회 2층 사무실 (각 과정별 시간표 참조)

☎ 010-6375-8874, 010-2737-7111

⑥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⑦ NGO 및 창업을 통한 해외선교 지원 입주자 모집

· 목적 : 해외 NGO 또는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공간 및 교육을 제공하고 협력하여 선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국제개발협력 사업, 창업, 비즈니스 선교(농업,사회적기업) 등을 준비 중인 단체 또는 개인

· 인큐베이팅 공간 : 춘천시 온의동 방송길 102 (남춘천역,시외버스터미널 도보5분)

· 접수방법 : 수시접수 (12명 선발시까지)

· 지원양식 요청 : ☎ 010-8737-1919 또는 이메일 hyoshinmf@naver.com

· 주광 : (재)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 효신국제협력스튜디오(HYCS)

⑧ [재능기부] CCM 일렉트릭 기타 레슨

· 목적 : "다음 세대의 찬양사역을 예비하고 싶습니다!"

· 내용 : 전자기타 기본 이론 및 반주 | 앰프, 이펙터 활용, 톤 만들기 | 외국 CCM곡 감상 및 번역 등

· 장소 : 만천리 순복음춘천교회 본당 · 일시 : 매주 금 18:00 · 준비 : 개인 악기 지참 · 회비 : 월10,000원 (학생 5,000원)

· 연락처 : THE착한모바일 벧엘 길군 (길상훈) ☎010-5191-2079 (레슨비 없으면 연락주세요. 대신 납부해드립니다.)

(현, 순복음춘천교회 일렉 세션, 전 선한목자교회 일렉 세션)

⑨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BEDTC

· 대상 : 만20세 이상,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 기간 : 4월15일 ~ 7월 (매주 목금) · 모집기간 : 2월15일~4월13일 · 회비 : 70만원(변경가능,전도여행비 별도)

· 문의 : 김민경간사(010-8714-5994), 춘천지부사무실(033-252-1128)

탈북자 도시체험행사



탈북자 도시체험행사가 2월 13일(토) 오전10시에 남춘천침례교회(강종원 목사)에서 있었다. 한정협 주최와 춘천기독교연합회(차덕수 목사)의 주관으로 열렸는데, 이날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는 홍요셉 목사(사랑의 침례교회)의 설교가 있었으며, 한정협의 인도에 따라 도시체험행사를 섬김이들과 가졌다.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이 남한에 잘 정착하고 또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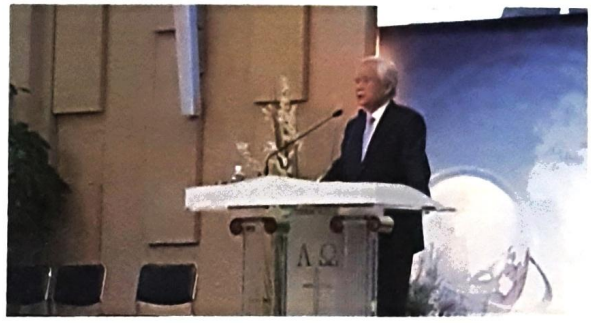
쥬빌리 50차 춘천모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제50차 춘천모임이 2월 15일(월) 저녁7시15분에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있었다. 50차 모임에는 춘천에 두 번째로 초대되는 컨티넨탈싱어즈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공연은 "회복, 새로운 능력"이란 주제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 내가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변화시켜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회복을 주제로 약 2시간여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컨티넨탈싱어즈의 찬양은 익숙치 않은 하모니였으나, 대원들의 몸짓과 찬양의 모습은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팀임을 알 수 있었다. 여호수아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가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춘천과 강원도와 한반도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되었다. 51차 모임 강사는 오일준선교사(필리핀)입니다.

제97주년 3.1절 연합예배



제97주년 3.1절 연합예배가 2월 28일(주일) 오후2시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차덕수 목사)주관으로 드려졌다. 1부 예배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호산나, 뒤나미스 찬양단의 찬양으로 예배를 열었고, 박상칠 목사(춘기연 수석부회장, 신성감리교회)의 사회로 강철주 장로(춘천기독교장로연회 회장, 창대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차성회 목사(춘기연 서기, 샘밭침례교회)의 성경봉독과 순복음춘천교회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으며, 차덕수 목사(춘기연 연합회장, 강원침례교회)의 인사말과 강사소개가 있었고, 황영찬 목사(춘천침례교회 원로목사)의 설교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시126:1~6b)이란 제목으로 있었다. 이어 특별기도에는 김종익 목사(춘목연 직전회장, 광명장로교회), 이수형목사(춘천성시본부 부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의 인도로 있었으며, 조용아 목사(춘천장로교연합회장, 성광장로교회)의 헌금기도와 강성현 권사의 봉헌찬양, 김영일 춘천시의장, 최동용 춘천시장, 김진태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박인관 목사(춘천성시본부 부이사장, 광염감리교회)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김종열 장로(신성감리교회)의 인도로 만세삼창이 있었다. 다같이 애국가 제창이 있었으며, 오의석 목사(춘기연 총무, 순복음조은교회)의 광고와 지용찬 목사(춘기연 직전회장, 은혜장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특강에는 "이슬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만석 선교사(4HIM 선교회, 한국이란인교회)의 강의가 있었다. 이번 강의는 강원도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할랄타운 조성 및 이슬람 금융을 유입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때에 마련된 강의여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강원성시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

(1) 지역성시화운동본부간 성시화운동 동질성 공유와 교회공동체의 연합활동 전개

강원 전역의 복음화와 150만 도민의 영혼구원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2월 26일(금) 강원성시화운동본부 양명환 대표회장(횡성감리교회 담임)께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 이사장 이수형 목사 시무교회인 순복음춘천교회에서 금요심야기도회를 인도하시며, 열왕기하 2:1~14 말씀으로 "거룩한 욕심"이라는 주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앞으로 지역성시화운동본부 단위의 교회연합성회 또는 개 교회간의 특별한 집회시간을 활용하여 성시화운동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강원 탄광촌의 대명사 '태백'에서 〈성시화 운동〉의 불을 지피기 시작하다.

강원 탄광촌의 대명사 태백은 성시화운동에 관한 정보교류가 미약한 지역이었다. 그곳이 태사랑유치원 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옥기집사에 의해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고 있다. 김옥기집사는 춘천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춘천홀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동해성시화운동본부를 조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태백에 근무하면서 지역 목회자에게 '성시화 운동의 3전운동(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도시에)' 을 통한 지역복음화를 건의하였고, 지난 1월 6일 태백기독교연합회 신년교례회 때 제안 설명회(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1월 12일 태백기독교연합회 임원회의를 구성 개최하여, 대표회장에 기독교연합회장인 김준철 목사, 본부장에 오대석 목사, 사무총장에 최상규 목사, 사무국장에 김홍렬 목사를 선임하였다. 오는 3월 19일에는 기독교계지도자(목회자, 평신도)를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인데, 앞으로 태백성시화운동본부가 시민의 영적구심체가 되어 강력하고 견고한 도성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주요사역 소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주요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를 위한 중보와 각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 2월 25일 ~ 26일 : 목포성시화운동본부, 충남(16개 시군)성시화운동본부 방문
(2) 3월 5일 : 평택성시화를 위한 전도훈련 및 전도실천
(3) 3월 13일 ~ 14일 : 동경성시화운동본부 컨퍼런스(예정)
(4) 3월 19일 : 강원 태백성시화운동본부 창립을 위한 설명회 및 임원구성
(5) 4월 9일 미국 총력전도집회가 LA콜로세움에서 루 잉글 목사를 주강사로 열립니다. 한인 기도회시간은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합니다.
(6) 4월 10일 ~ 11일 : 미국 팜스프링스성시화대회 개최
(7) 16일 ~ 18일 : 제주도성시화운동 전도대회
(8) 6월 27일 ~ 30일 : 주간 우크라이나성시화 대회(예정)
(9) 9월 13일 ~ 16일 : 2016유럽성시화 대회(예정)
(10) 중국내 탈북자들이 낳은 무국적 아이들(3만 명)에 대한 대책마련 – 정부와 교계에 요청
(11) 북한 광명성 4호 발사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 개최(예정)

2016년 부활 감사 음악회

오르겔바우 마이스터 홍성훈의
바랑피리 오르겔과 함께하는 3인 음악회

일시 : 3월26일 (토) 오후 4시



피아노와 오르겔 김은주



플룻 김해순



바이올린 박지은

'빛 생명 부활'
그리스도의 향기전



일시 : 3월26일(토요일)-4월21일(금요일)

장소 : 갤러리 오르

참여작가 : 박정희, 유명애, 구숙현, 구여혜, 김혜린, 엄혜지, 김선희, 하지혜, 윤석경



한울섬김교회

춘천시 스무숲 1길 16 (석사동 907-3) T. 033.261.0695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혜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혜숙 김현철 김화분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미연 신옥자 심상만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성숙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경 이은준 이주영 이진주 이태우 임덕수 임재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창순 전천일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명호 조소현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옥순 최은희 최종대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한순수 한명수 한정연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은주

춘천성시운동본부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교회

갈릴리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시온성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영광한의원 JDM 아가갤러리 행복재가요양기관 춘천와이신협 매일관광 성시무용단 월드비전 건사연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제5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완화의료 호스피스는 말기암 환자의 남은 삶을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인 돌봄으로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팀의 구성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가능한 최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활동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육 일시	2016년 4월 26일(화) ~ 28일(목) 10:00 ~ 17:00
교육 장소	강원대학교병원 암 · 노인센터 9층 교육실
대 상 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분
모집 인원	30명 (선착순 마감)
신청 기간	2016년 2월 22일 ~ 4월 15일
교 육 비	2만원 (교재 및 식사비)
신청 문의	033.258.9060/9063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 강원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경우 위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KNUH 강원대학교병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주관 강원지역암센터 GANGWON CANCER CENTER

춘 천 기 독 교 연 합 회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연/합/예/배

일시 2016년 3월 27일(주일) 새벽 5시

장소 호반체육관

강사 유동선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 총회장, 춘천중앙성결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